



‘상승 후 주춤’ KIA, 타선 부진 극복할까

프로야구 전망대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타격 부진 극복과 함께 상위권 추격을 노린다. KIA는 지난주 주춤 키움하어로즈에 스피닝을 따낸 뒤 주말 LG트윈스에 스피닝을 당했다. 그 결과 28승 1무 25패로 승률 0.528을 기록, 리그 4위 자리는 유지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위 한화 이글스가 불과 0.5게임차로 추격하고 있고, 6위 두산베어스와도 3게임차에 불과하다. 반면 3위 삼성라이온즈와의 격차는 4게임으로 벌어졌다.

이번 주 KIA는 광주에서 리그 9위 롯데가 연초와 삼성을 차례로 만난다. 홈 6연전 결과에 따라 중위권 경쟁에 머물지,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순위 분수령에 서 있는 현재 KIA 타선의 흐름은 좋지 않다. 지난주 경기 기간 팀 타율 0.237로 리그 8위에 머물렀다. OPS(출루율+장타율)도 0.645로 리그 8위에 그쳤다.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던 타선이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침체된 모습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심타선의 부진이다. 팀 공격을 이끌어야 할 김도영은 지난주 6경기에서 21타수 5안타 1홈런 타율 0.238을 기록했다. 시즌 홈런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을 만큼 장타력은 여전히 하지만, 꾸준함이 떨어진다. 특히 LG와의 3연전에서는 무안타 경기를 기록하는 등 타격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대체 외국인 타자 아델린로 트리게스도 6경기에서 타율 0.182(22타수 4안타)에 머물

렀다. 합류 직후 화려한 홈런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기록 있는 모습이다.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남은 경기 활약이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테랑들의 침묵 또한 아쉽다. 김선빈은 지난주 타율 0.190, 나성범은 0.150, 김호영은 0.100에 그쳤다. 중심 타선과 베테랑 타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팀 공격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나마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위안거리다. 박재현은 6경기에서 25타수 7안타 1홈런 3타점 타율 0.280을 기록하며 꾸준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준수도 5경기 타율 0.400(15타수 6안타)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김규성은 5경기에서 11타수 6안타 타율 0.545를

적인 투구를 펼치며 토종 선발진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주 경기에서는 새 얼굴 시라카와 케이쇼의 활약 여부도 관심사다. KIA는 지난달 28일 아시아쿼터 투수 제리드 데일의 대체 선수로 시라카와를 영입했다. 시라카와는 이미 KBO리그에서 SSG랜더스와 두산베어스 소속으로 뛰며 경험을 쌓은 바 있다. 오는 4일 롯데전 선발 등판이 예고된 가운데, 2군으로 내려간 이의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A는 이번 흐름 속에서 주춤 롯데와 맞붙는다. 롯데는 현재 21승 1무 30패 승률 0.412로 리그 9위에 올라있다. 평균자책점은 6위

2~4일 롯데·5~7일 삼성과 홈 6연전 돌입 주간 타율 8위 반등해야...마운드도 기대감

기록하며 앞돌린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결국 중심 타선이 살아나며 공격 전체가 반등해야 한다.

반면 마운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KIA는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 3.53으로 리그 2위에 올랐다. 선발진과 불펜 모두 안정감을 찾으며 팀 상승세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제임스 네일은 지난 27일 키움전에서 7이닝 6피안타 8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직전 등판 부진을 말끔히 씻어내며 다시 에이스다운 모습을 되찾았다.

황동하 역시 패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일 키움전에서 6이닝 4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의 완봉투를 선보이며 승리를 이끌었다. 안정

(4.51). 팀 타율은 8위(0.258)로 모두 KIA(평균자책점 4.17·타율 0.264)를 밑돌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또한 4승 1무 1패로 KIA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롯데는 2일 나균안을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제임스 네일을 선발로 투입한다.

롯데와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같은 장소에서 삼성과 3연전을 치른다. 삼성은 KIA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순위 경쟁팀이다.

6연승 후 3연패에 빠진 KIA가 홈 6연전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상위권 추격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도영

황동하

전남도체육회, 스포츠버스 사업 본격 운영

전남도체육회의 ‘스포츠버스’가 지역 학생들을 찾아가며 본격적인 체육복지 서비스에 나섰다.

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해남군 산이서초등학교에서 ‘2026 움직임은 체육관 스포츠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형 체육복지 프로그램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올해 공모사업에서 전국 32개 운영기관 가운데 8개소가 선정되며 강원도체육회(10개소)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선정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클럽 육성, 체육복지 확대 분야에서 전남체육회의 우수한 사업 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산이서초등학교 학생들과 병설유치원 원아, 교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해남군 산이서초등학교에서 ‘2026 움직임은 체육관 스포츠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참가자들은 스포츠버스 내부에 마련된 다양한 체육 장비를 체험했으며, 실내체육관에서는 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

여하며 색다른 스포츠 경험을 즐겼다. 특히 협동 놀이와 체육활동으로 구성된 작은 운동회가 열려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 학

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 콘텐츠를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인희 교사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고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라 교육적 효과도 컸다”며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스포츠버스는 단순한 체육 체험을 넘어 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체육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앞서 무안 정계초등학교 교 운영을 시작으로 이번 해남 산이서초등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선정된 도내 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스포츠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해남 산이초서 VR체험·작은 운동회 진행 전국 두 번째 8개소 선정·체육 복지 확대

KIA타이거즈·삼성라이온즈 3년째 잇는 보라색 ‘달빛동맹’

5~7일 챔피언스필드서 달빛시리즈

KIA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가 3년째 특별한 ‘달빛동맹’을 이어간다.

KIA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을 ‘달빛시리즈’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달빛시리즈는 광주의 별칭인 ‘빛고을’과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을 결합한 명칭이다. 지난 2024년 처음 시작된 이후 양 구단의 대표 교류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시리즈는 양 팀의 상징색을 조합한 보라색과 달빛을 메인 콘셉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다양한 특별 행사와 팬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먼저 시구 행사부터 눈길을 끈다. 5일 경기에는 가수 조빈과 프로축구 광주FC 주장 안영규가 시구자로 나서며, 7일 경기에는 걸그룹 이즈나(izna) 멤버 방지민과 코코가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는다. 6일 현충일 경기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시구·시타·시포를 진행하며 의미를 더한다.

시리즈 기간 동안 팬들을 위한 이벤트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첫날인 5일에는 양 팀의 화합을 상징하는 보라색 응원 반다나가 관중 전원에게 제공된다. 경기 전과 경기 중에는 KIA와 삼성 치어리더의 합동 공연이 펼쳐지며, 5일과 7일 경기 종료 후에는 양 팀 응원단이 합동 뒤뚱이 응원전이 열린다. 특히 5일에는 시구자로 나서는 조빈이 응원전에 참여할 예정이다.

챔피언스필드 중앙출입구 앞에는 달빛시리즈 콘셉트를 활용한 특별 포토존도 설치된다. 7일 경기 전에는 젊은 외야수들의 특별한 만남도 마련된다. KIA 박재현과 삼성 박승규가 합동 팬 사인회를 열고 야구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역 상생 협업을 진행한다. KIA는 광주 대표 디지털 브랜드 코코로나인과 손잡고 달빛시리즈 한정 메뉴인 ‘달빛동맹 떡볶이 케이크’를 선보인다. 다양한 디지털 상품도 판매되며, 시리즈 첫날에는 일부 제품을 관람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박민지가 5타 차 열세를 뒤집는 대역전극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20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박민지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양평 더스타휴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린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총상금 10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몰아치며 8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이는 코스 레코드를 타이 기록이다.

최종 합계 10언더파 206타를 적어낸 박민지는 ‘루키’ 김지윤(9언더파 207타)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지난 2024년 6월 쉐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에서 통산 19승을 거둔 뒤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던 박민지는 2년 만에 다시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통산 20승 고지를 밟았다. KLPGA 투어에서 통산 20승을 달성한 선수는 고(故) 구유희, 신지애에 이어 박민지가 세 번째다. 박민지는 앞으로 1승을 더 추가하면 KLPGA

박민지, 5타 차 뒤집고 KLPGA 통산 ‘20승’

MBN 여자오픈 최종일 8언더파 코스레코드 타이...역대 세 번째 기록

투어 최다승 신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공동 10위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박민지는 선두와 5타 차로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앞선 선수들이 주춤하는 사이 전반에만 3타를 줄이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

후반에도 박민지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16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승부처는 마지막 18번 홀(파5)이었다. 박민지는 버디 퍼트를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마지막 조의 경기가 끝난 뒤 우승이 확정되자 박민지는 통산 20승 달성의 기쁨을 만끽했다.

박민지는 “사실 아직도 내가 20승을 달성했다는 게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우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플레이했는데,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20승이 찾아와 주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예전에는 20승을 하면 내 골프 인생의 큰 챗터 하나가 완전히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20승을 빨리 이루게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면서 “이제는 내가 이 위치와 기록에 어울리는 선수가 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선배이자 선수가 되고 싶다. 물론 투어 선수인 만큼 우승 트로피는 계속 추구하고 싶다”고 덧붙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박민지가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우승으로 통산 20승을 달성했다. 사진제공=KLPGA